자녀 동반 극단적 선택은 '살인'이다

조유나양 사망 계기 "어른탓에 아이 목숨까지…" 비난 목소리
부모라도 자녀 생명 빼앗을 권리 없어…긴급복지제도 활용 도움

조유나(10·5학년)양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나, 여론은 '조양 부모의 잘못'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양 부모가 채무를 이기지 못하면서 조양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굳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양 부모가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으로 조양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추측에 무게를 두고 사망 이전 행적을 조사 중이다.

타살·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계좌 추적 결과 1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 조양 집과 우편함에 각종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점, 조양 부모가 최근 휴대전화로 '수면제', '물때', '추락 시 충격' 등을 검색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펜션에서 5월 30일 밤 11시 짐을 싸서 퇴실했다는 점, 인양된 조양 가족의 차량에서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매져 있었다는 점도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무책임한 어른 탓에 아이까지 목숨을 버려야 하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양을 동반한 일가족 극단적 선택에 초등학생인 조양의 의지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100% 부모의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양을 떠나보낸 학교측도 같은 입장이다. 30일 광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조양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실이라면, 만 10살 어린 아이인 조양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긴급하게 채무가 쌓이거나 실직했을 경우, 긴급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을 하다 휴업·폐업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를 장기체납한 경우 등 조양 가족과 유사한 사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양 부모는 이같은 복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도, 도움을 받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서 매달 양육비를 지원받거나 의료비를 지원받는 등 복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에는 사업을 하면서 차상위계층을 벗어났다가 다시 경제상황이 나빠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양은 지난 5월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체험학습을 간다며 가족과 집을 떠났으나, 지난 29일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으며, 30일 밤 11시 송곡항으로 이동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펜션을 떠날 당시 조양은 모친 등에 업혀 축 늘어진 모습이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30일 조유나양 일가족 3명의 시신이 광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이날 장례식장에 조양 가족의 빈소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유나양 일가족 '사인 불명'…"익사 가능성 배제 못해"

경찰, 약물·독극물 검사 병행…코인거래 입금 내역 등 수사도

조유나양 일가족에 대한 1차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그쳤다.

경찰은 30일 조양 가족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구체적인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을 내놨다. 시신에서 목을 조르는 등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시신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1개월여 시간이 흐른데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긴 채로 부패가 심한 상태라 사인을 즉시 판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내 플랑크톤, 위 내용물 등에 대한 약·독극물 검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체내 플랑크톤 검사를 하면 사망자가 물에 빠지기 전에 숨졌는지, 물에 빠진 다음 숨졌는지 알 수 있다. 이 과정에는 2~3주가 걸리며, 종합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달여가 걸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조양 가족의 행적에 대한 조사도 계속된다. 전날 바다에서 인양한 조양 가족의 차량에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조양 가족이 숨지기 전 행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차량에 대한 고장 여부와 교통사고 흔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조양 가족의 카드거래 내역을 확인해 수면제를 구입하는 등 극단적 선택 준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인거래소에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요청해 사망 이전 조양 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해 나주 모녀사망 아버지 살인혐의 적용

자녀동반 극단선택 법원 판단
1심 징역 7년, 2심 12년으로

조유나양 일가족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어린 자녀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희생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조양 일가족 실종 사망 사건과 같이 자녀를 앞세운 가족의 극단적 선택에서 살아남은 보호자에게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엄벌하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9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나주 모녀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고인 A(49)씨는 2021년 6월 9일~11일 사이 여덟 살짜리 자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하고, 아내(47)의 극단적 선택 행위를 보았는데도 말리는 대신 뒤따라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부추긴 혐의(살인, 자살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극은 일가족 3명이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나주 집에서 일어났다. 극단적 선택 배경은 경제적 사유였다.

피고인 A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도 여행은 잘살아 보자는 취지로 갔고, 막걸리와 함께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과 같이 마지막을 하고 싶었다"는 내용의 컴퓨터에 남긴 글은 유서가 아니라 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지난 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특히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가장 믿었던 아버지 손에 생명을 빼앗겼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출을 줄여 생계를 꾸려가는 게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부가 죽은 뒤 어린 딸만 홀로 남겨 고아로 힘들게 살게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딸을 살해한 것 역시 '자녀의 생사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이다"고 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지난 9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어린 딸은 자신의 삶을 채 펴보지 못하고 사망했고,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나 참작할 사유가 없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

부엌칼 들고 거리 활보 불법체류 외국인 테이저건 쏴 제압

흉기(가정용 식도)를 들고 집으로 가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20대 남성)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됐다.

3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께 광산구 월곡동에서 '코드 제로(0)' 신고가 접수됐다. 코드제로는 강력 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으로 이날 신고는 외국인남성이 대낮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정용 식도를 손에 들고 걸어가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해 바닥에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흉기를 포기하지 않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겨누며 다시 5차례 칼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경고했지만, 이 남성이 흉기를 계속 쥐고 있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이 남성을 제압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부동산 팝니다

선운지구, 해광샹그릴라, 32평
10층, 남향, 일조권, 조망 최상
즉시 입주 가능
급매 - 4억 2천만원 (전세, 3억 2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신안동, 대지, 176평
일반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보유
타용도 변경가능
급매 - 22억원

남구 덕남동, 임야, 200평, 지분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 접합
개발 호재 많음
매매 - 4천 4백만원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2평
8층, 남향, 천변쪽 코너, 전망 최상
현재, 보 1천만 월 55만 임차인 있음
매매 - 1억 1천 5백만원 (보증금 포함)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 급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오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